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발행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 주소 02862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20길 27 (빛의사람들) 전화 02)921-5093
FAX 02)921-7847 E-Mail kyodo@catholic.or.kr 홈페이지 www.catholic-correction.co.kr

머리글

송정섭 시몬 신부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부위원장

꽃은 자리를 타하지 않는다

구치소 미사에서는 성가 한 곡에도 큰 위로와 치유의 힘이 담겨 있음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남자 사동 이든, 여자 사동이든, 음악 봉사자가 영성체 후 특송을 부르면 여기저기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말씀대로 ‘성가는 우리가 바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임이 틀림없습니다.

좋아하는 생활성가 중에 강훈 바오로 형제님의 ‘꽃꽃들을 볼 수가 있을까’라는 곡이 있습니다. “세상에 맑은 날만 있다면, 숲속의 꽃꽃들을 볼 수가 있을까. 인생에 맑은 날만 있다면, 하느님을 사랑하 는 마음이 자랄 수 있을까. 꽃꽃들에 비바람이 일었네. 시련이 향기를 피웠네. 우리 안에 견뎌온 고통이 주님 향한 사랑을 키웠네. 사랑은 외로움을 품었네. 두려움도 품었네. 모든 아픔을 품었네.”

비 오는 날이 있기에 꽃꽃들을 볼 수 있는 것이듯, 시련의 시기가 있기에 내가 얼마나 하느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혼자가 되어보니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의 도움과 사랑을 받으며 살아 왔는지를 알게 됩니다. 다투고 싸워보니 얼마나 내 생각만 했던 것인지를 성찰해보게 됩니다. 무언가를 잃어보니 내가 만물의 주인이 아니었음을, 소유가 얼마나 덧없는 것이었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꽃은 자리를 타하지 않습니다. 바람을 타하지도, 날씨를 타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늘을 바라볼 수 있고 햇빛을 쬌 수 있으면 될 뿐입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자기가 피워낼 수 있는 만큼만 피워냅니다.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라’, ‘제단에 예물을 바치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하여라’, ‘먼저 평화를 빙다고 인사하여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때로는 따르기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느님께 삶의 주도권을 맡겨봅니다. 십자가를 외면하며 편하고 이득이 되기만을 바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 길의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으며, 무의미해 보이는 현재의 시간에서도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각 교정시설 대표봉사자 आयु회



5월 29일(수)~31일(금) 각 교정시설 대표봉사자 आयु회가 있었습니다. 전라북도 변산반도에서 자연을 둘러보며 함께 미사도 봉헌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정시설 봉사자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돕고 이끌어 주는 대표봉사자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힘을 얻고 봉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돌아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화의집(출소자 쉼터) 미사



5월 24일(금) 오후에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센터 성당에서 평화의집에 거주하는 형제들의 미사가 송정섭 시몬 부위원장 장 신부의 주례로 봉헌되었습니다. 미사를 통하여 신앙을 확인하고 복음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 미사



6월 3일(월)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가 가톨릭회관 3층에서 정민하 율리오 신부의 주례로 봉헌되었습니다. 이 미사에는 6월 29일 축일을 맞이한 최남식 베드로 신부(살레시오회)의 축하식도 진행되었습니다. 최남식 신부님의 영육간 건강을 위한 마음을 담은 특송을 준비해주신 봉사자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6월부터는 시니어 카리타스 합창단의 성가로 더욱 풍성한 미사를 봉헌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を 전합니다.



성모님의 부르심

박삼석 사도요한 _ 서울남부교도소 공장 레지오 봉사자

+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2015년 5월 천왕동으로 이사 오면서 오류동 성당에서 특수 브레시디움을 운영관리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남부교도소에 레지오 단체가 있고, 구로16지구 꼬미씨움에서 직속으로 두고 봉사자 2명이 월 2회 참관지도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평일 봉사는 회사 근무로 어려워 다른 형제님을 추대해 보내 드렸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온 지구를 공포로 몰아 3년여의 깊은 암흑으로 타인과 일정한 거리두기로 중단되었습니다. 교정시설 활동이 재개되어 서울남부교도소 공장 대표봉사자의 요청으로 참관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저의 봉사 의지는 교도소 내 환경에서 레지오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과 그 환경에서 수용자들의 기본 신앙인 개인 성화를 통해서 저의 영적인 삶과 하느님 사랑의 관계를 이어주고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신앙의 활력소가 되어줄 곳이기애 순명을 했습니다.

저의 역할은 레지오 단원들의 개인 성화를 돕는 '훈화'를 해주고, 교도소 안에서 신앙인이면서 레지오 단체의 한 지체로서 해야 할 활동의 범위와 레지오 규율과 교본에 준한 이론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단원들의 주된 활동은 '미사 준비와 참례, 성가대 봉사, 성경 읽고 쓰기, 묵주기도, 교본 공부' 등 영적인 활동과 교도소 안에서 '종교 활동, 청소 미화와 육체적 봉사, 외적인 활동' 등 설계된 작은 공간 안에서 도 작게라도 어둠을 헤쳐 나오려는 수용자들의 한 면에서 민들레를 보았습니다.

수용자 또한 저와 같은 한 인간이고, 하느님께서 탄생시킨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편적 교회에 순종하고 현실적 사실에 순응하며, 예수 그리스도님에 대한 갈증으로 얻어지는 결실에 희망을 두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회사 핑계로 교만함에 사로잡혀 성모님의 부르심에 나와 관계없다는 듯 방관한 시간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성모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의 자리로 돌아가서 너의 일을 다 하도록 하여라.!”

예, 어머니! 어머니께서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응답하신 것처럼 저 또한 “예” 했으니 순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사울을 죽였다는 아말렉 사람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_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사울이 자기 무기병에게 명령하였다. “칼을 뽑아 나를 찔러라. 그러지 않으면 할례받지 않은 저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희롱할 것이다.” 그러나 무기병은 너무 두려워서 찌르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 칼을 세우고 그 위에 엎어졌다.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무기병도 칼 위에 엎어져 그와 함께 죽었다(1사무 31,4-5).

다윗이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고 물었다. 그가 다윗에게 “이스라엘 진영에서 빠져나왔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 다윗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서 말해 보아라.” 하자, 그가 대답하였다. (...) “제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가 사울 임금님께서 창에 몸을 기대고 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병거와 기병들이 그분을 바짝 뒤쫓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뒤돌아보시다가 저를 발견하고 부르셨습니다. 제가 ‘예!’하고 대답하니, 임금님께서 저에게 ‘너는 누구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아말렉 사람입니다,’ 하자, 임금님께서 저에게, ‘내 곁으로 와서 나를 죽여 다오. 내게 아직도 목숨이 붙어 있으니 괴로워 견딜 수가 없구나.’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분께서는 쓰러지신 뒤에 다시 살아나실 것 같지 않아, 그분 곁으로 가서 그분을 돌아가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머리에 쓰신 왕관과 팔에 끼신 팔찌를 벗겨 여기 나리께 가져왔습니다.” (2사무 1,3-4ㄱ. 6ㄴ-10)

그가 죽인 것이 맞을까요? 사무엘 상권에는 자살했다고 나오는데, 사무엘 하권에는 아말렉 사람에게 죽였다고 나옵니다. 무엇이 사실일까요? 사울이 죽는 것을 멀리서 보고는 그 업적을 차지하려고 했을까요? 무엇이 맞고 틀리고 간에 그는 무엇을 기대하고 다윗에게 온 것일까요? 다윗과 사울이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다윗에게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 칭찬을 들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였을까요? 높은 지위와 권력을 기대했을까요? 그는 사울 임금을 죽였다는 표지로 왕관과 팔찌를 가져왔습니다. 보답으로 재물을 기대했을까요? 재물을 기대했다면 왕관과 팔찌를 팔지 않았을까요?

아니, 보다 더 높은 지위와 권력을 차지하려거든, 보다 더 많은 재물을 기대했다면 왜 아말렉에 가지 않았을까요? 아말렉에 갔다면, 원수인 사울을 죽인 영웅으로 영광과 권력을 차지할 수 있었을 테고, 그에 따르는 재물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며, 사울의 왕관과 팔찌 역시 더 높은 값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2사무 1,3)

“너는 누구냐?” (2사무 1,8)

“너는 어디 사람이냐?” (2사무 1,13)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재물과 권력을 따르는 “이방인의 자손이며 아말렉 사람” (2사무 1,13) 일까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면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자신을 낮추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지요. 내 뜻에 맞지 않는다면 상대방을 미워하고 비판하고 속으로 여러 번 죽이고 있지 않은가요.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께 와서 ‘저 잘했죠’라고 하는 것은 아닌가요.

재물을 마구 모으고 쌓는 자본주의 방식, 경쟁에서 남을 짓누르고 이기는 방식으로 상대방보다 세속적으로 뛰어나다며 뽐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내 욕망대로 살면서 남들보다 잘 살았다며 하느님께 칭찬받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닌가요.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여 도와주기보다는, 그의 불행과 아픔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바라고 있지 않은가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다윗이 아말렉 사람에게 한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가 어찌자고 겁도 없이 손을 뻗어 주님의 기름부음받은이를 살해하였느냐?” (2사무 1,14)



시몬 신부님께 ♥

평화 !!

안녕하세요 신부님 !!

4월 30일 미사에서 찬양해주는 봉사자님께서 영성체후 특송시간에 저희와 함께 부르는 성가를 준비해오셔서 후렴구들을 함께 찬양하였는데 저를 포함하여 많은 수용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함께 한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요즘에 [의사 선우경식] 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

선우경식 (요셉) 선생님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 그분의 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적과 같았던 요셉의원과 하느님이 함께한 기적의 시간들을 공감하고 제 삶을 되돌아 볼 수 있었어요 .

시몬 신부님 ?

저는 2023년 부활절 미사에서 , 이 곳 담장안에서 세례를 받았지만 저의 삶속에는 언제나 하느님의 기적과 도움이 함께 하였음을 깨달았어요 .

엄마의 죽음앞에 제 자신이 쓸모없고 , 화도 나고 좌절 , 자괴감으로 잠도 못자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

정벌이라 아목와도 연락하지 못하고 1평도 안되는 공간에 나홀로 고립되어 무뎠던 죽을 방법만 다시 찾게되는 나약한 존재가 바로 나구나 .. 제 자신을 직시했습니다 . 그리고 두손 모아 기도했습니다 . 제가 할 수 있는게 기도밖에 없었어요 .

하지만 신부님은 저의 마음을 먼저 보듬어주시고 , 저희 엄마의 장례비는 5 천주교의 도움으로 교정사목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비즈소 마음 안에 힘들게 안고있던 엄마를 그제서야 하늘로 온전히 보내드릴수 있었습니다 .

시몬 신부님!

저는 태어나서 부터 지금까지 모든 순간 하느님안에 살고 있었고, 힘든순간 하느님의 도우심의
기적을 받은 저는 행운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것도 모르고 저는 제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제 인생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기적이란건 제 삶의 모든순간을 함께 해왔는데.. 저는 순간의 요행만 바라면서

제가 받은 기적의 모든 순간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셨습니다.

이런 제가 뭐라고... 하느님은 지금도 저와 함께 하시며 저에게 평화를 선물 해주십니다.

지금이라도 깨달아서 다행입니다.

선우경식(89세) 선생님의 전기를 읽으며 앞으로의 제 삶에 대한 방향을 조금씩 생각합니다.
정역안의 시간도 결코 헛된 시간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우경식 선생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제가 받은 기적에 대해
저도 세상의 소외된 모든곳에 아주 작은 기적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저역시 누군가에게 돌려줄수 있는 사람이 될게요.

항상 감사합니다 신부님 ♥

어려운 형편에서도 정직하고, 가전게 없어도 더 많은걸 탐낸적없던 ■■■이에게 감사해요.

그리고 저는 이런곳에서까지도 저와 제 아이들, 엄마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시몬 신부님 이하 서울대학교 교정사목위원회 신부님들, 봉사자님들을 만나서 무조건적인
값없는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음에 감사해요.

모든것이 감사할것뿐인데... 음망하고 부정했음에 잘못을 뉘우칩니다.

2024. 5. 13

소화테레사 윤김

*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매님이 어머니 장례를 도와준 교정사목에 보내는 감사 편지입
니다. 어머니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며, 자매님에게 늘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2024년 8월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 미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첫째 주 월요일 후원회원과 회원 가족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후원회원, 봉사자 외에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의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밀 가족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싶은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 일시 : 8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사제들은
매일 후원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미사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교정사목 휴대폰 번호 : 010-3732-5093



카카오톡 채널

● 행사 알림

- 7월 1일(월)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 가톨릭회관 3층
- 7월 3일(수), 11일(목)~12일(금) 서울남부구치소 남사 3기 인성교육
- 7월 17일(수) 해밀 가족 모임 / 교정사목 센터



● 새로운 교정사목 가족을 소개합니다. (24/5/16~6/17)

2024년 5월~6월에는 김기범, 김정숙, 김해숙 글라라, 윤선중, 이춘희, 임인혜 글로리아, 최숙희 프란치스카, 홍영선, 정릉동성당 강문선 베드로 외 43명님께서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불어, 변득일, 정릉동성당 김영진 플레멘스 외 6명님께서 기부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 방법

1.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catholic-correction.co.kr>)

‘후원신청’을 클릭 및 오른쪽 ‘모바일 후원신청 QR코드’로 신청

2.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 전화로 신청하기 / 후원사업부 (02-921-5094)

3. 직접 은행에 신청하기

- 직접 자동이체 신청 시 후원사업부 (02-921-5094)로 안내 부탁드립니다.
-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여 아래 ‘후원 계좌’로 이체 등록
- 은행 방문 시 준비물 (신분증, 도장, 통장) 지참 후 아래 계좌로 이체 신청



▶ 모바일 후원 신청

미납된 후원금을 지로로 납부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한 장으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절약됩니다.

(장당 210원~240원 수수료 부과)

※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신 후원회원분들은 **010-3732-5093** 교정사목 휴대폰으로 문자 부탁드립니다.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